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을 자랑하는 옥정호 순환도로

(사진=임실군 제공)

임실, 옥정호 벚꽃길 인산인해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봄나들이 핫플로 큰 인기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을 자랑하는 옥정호 순환도로가 만개한 벚꽃 향연에 관광객들로 연일 북적이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임실군 옥정호 순환도로 변에 벚꽃이 활짝 피면서 관광객이 급증,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까지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년 이상 된 벚나무들이 운암면 소재지부터 국사봉에 이르는 10km의 벚꽃길을 이루는 옥정호 순환도로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만개한 벚꽃길은 청정 옥정호와 출렁다리, 붕어섬 생태공원, 요산공원 등 주요 관광지와 어우러져 해마다 관광객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30~31일 개최된 벚꽃축제는

는 2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겼고, 지난 주말에도 1만5,000여명의 관광객들이 옥정호 순환도로 변 벚꽃의 향연을 만끽했다.

수변의 경관이 더욱 아름다워진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은 올해 3월 1일 재개장했고, 현재까지 7만5,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봄맞이 관광객들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그 덕에 옥정호 인근 음식점과 카페 등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등 지역 상권도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옥정호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송상섭 사장은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더불어 벚꽃을 보러오는 상춘객들 덕분에 주변 상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실군청 SNS 등을 통해 인근 맛집과 임실 가볼 만한 곳 등을 검

색하며, 임실 지역 여행에도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해내고 있다.

군은 앞선 주말인 8일 열린 옥정호 벚꽃길을 주 무대로 한 '2024 옥정호 그라운드·메디오폰도 대회'까지 대성공을 이루는 등 출렁다리 성공을 토대로 한 옥정호 관광 효과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심 민 군수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조성하기까지 참 우려곡절이 많았는데, 벚꽃과 더불어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는 걸 보니 참으로 감회가 남다르다"며 "벚꽃이 지고 난 후에도 5월에는 작약, 덩굴장미 등 관광객들을 위한 경관 조성으로 환상의 드라이브길과 산책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옥정호만의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더 특별한 임실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순창군이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본격 착수한 가운데 먼저 지역주민 참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시작된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순창읍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사업 선정 이후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회의, 선진지 견학,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23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프로젝트 핵심 중 하나인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순창공유플랫폼 '누구나 센터(순창읍 양지길 109)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곳에서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행 예정 프로그램인 '두드림아카데미'

'는 순창의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문화, 복지 분야별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4월 12일부터 7주간(매주 금, 오후 1시) 진행하며 현재 교육생 모집 중이다.

이와 함께 '정리수납 1·2급 자격증 과정'은 생활밀착서비스(정리정돈) 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총 12회의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한다.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구성했으며, 오후반은 4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오전반은 4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에 진행되며 반별 20명씩 현재 모집 중이다.

접수방법은 '누구나' 센터에 직접 방문해 현장접수하거나 센터 문의처(010-2489-496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누구나' 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sc_nugun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수원 메가쇼 2024 시즌1 참가... 공동부스 운영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10일부터 1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수원 메가쇼 2024 시즌1'에 참가해 남원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이하 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공동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메가쇼 남원 공동부스에는 남원시의 8개 사회적경제기업인 △지리산처럼 영농조합법인 △(유)메밀꽃피는향이리 △지리산맑은물순항골 영농조합법인 △(유)하이오백 △지리산향차마을 영농조합법인 △(유)웅치마을 영농회 △농업회사법인(주)비즈양조 △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이 참여, 들기름, 떡볶이 밀키트, 도토리묵, 김부각, 누룽지, 감정, 수제맥주, 전통주, 추어탕 등 특색 있는 남원의 기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수원 메가쇼 2024 시즌 1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바이어 및 유통관계자들이 매회 찾는 박람회로, 소비자 5만명, 바이어 1만명 참가가 예상되는 국내 최대규모의 소비자 박람회다.

이번 메가쇼 참가로 남원시가 자랑하는 우수한 기업 제품 홍보와 동시에, 다양한 소비자와 바이어와의 만남을 통해 기업의 현장매출, 유통 판매, 판로 개척, 신규고객 유치 등을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대규모 조림 사업 추진

순창군이 군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목재로서의 이용 가치가 적은 불량림을 대체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조림 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군은 나무 심기의 최적기인 4월 말까지 사업비 3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74ha 면적에 편백나무, 백합나무 등 총 19만 5천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경제림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기에는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복흥면 추령장승촌 일대에 아름다운 경관림을 조성함으로써 '명품 숲'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과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외국인 유학생 300명 초청 남원문화 체험 행사

남원시는 지난 9일, 전북대학교 한국 어학당 외국인 유학생 300여 명을 초청해 남원의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남원시와 전북대는 지난해 11월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되었으며, 2027년도까지 옛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문화체험 행사는 미래의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의 학생들이 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남원의 문화를 알리고 관광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류 행사로, 여러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도자기 제작 체험, 김병종 미술관 관람 및 광한루원과 요천의 벚꽃길 도보여행을 하며 남원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 관계자는 "미래의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의 주인공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영농철 맞아 벼 종자소독 철저 당부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건전 묘 생산을 위하여 올바른 벼씨소독법과 약제 사용 요령 등 영농지도에 나섰다. 정부 보급종은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종자를 통해 전염되는 카다리병, 선충 등 쌀 수량 감소 및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정선된 마른 종자를 사용해 종자소독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종자소독은 온탕 소독과 약제침지 소독법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온탕 소독은 60℃의 물 100L에 벼씨 10kg을 10분간 담가 소독 후 꺼내어 바로 찬물에 10분 이상 담가야 하며,

물과 종자의 비율은 10:1이 좋다. 약제침지 소독은 벼 종자소독용 전용 약제와 물 20L에 벼씨 10kg을 벼씨 발아기를 이용하여 30~32℃의 온도로 맞춰 48시간 동안 담가 소독하는 방법으로 약제별 희석배수, 약액 온도 및 침지시간을 준수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약제는 약효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2~3년 주기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또한 2023년산 신동진벼 정부 보급종 '소독종자'를 수령한 농가는 살균제를 겹질에 묻혀 놓은 상태이므로 망사포대에 옮겨 담아 침지소독 후 맑은 물로 세척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스마트 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 일한

남원시가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지역내 복지자원연계 강화부문) 분야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공모는 수원 세 모녀, 신림동 반지하 침수사고 등을 계기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해 주민 누구나 어디서든 복지·안전을 보장받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통해 추진되었다. 남원시는 집배원을 통해 소규모 생활품을 대면 배송하여 주기적으로 위기가구의 안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대상자의 위기 정보를 입수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결·지원하도록 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며 복지안전망 강화에 힘을 쓰게 되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남원시는 남원우체국과 협약을 통해 총사업비 2,600만원을 투입해 1회 2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총 13회에 걸쳐 지역주민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발맞추어 인공지능(AI) 시스템(네이버클로바케 어플, KT AI 스피커 등) 및 관내 기관간 협업을 통해 2024년 1,000세대가 넘는 가구에 안부살핌 서비스를 운영하

고 있다.

한편 희망복지지원팀 박성희 팀장은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재로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이 중요하며, 누구라도 사회적 고립 및 복지사각지대로 판단되는 가구가 있으면 남원시청 희망복지지원팀(063-620-6335) 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